



사내 News

- 모태펀드 1차사업 최종통과
- 최원연 파트너 영입

벤처캐피탈 News

- 모태펀드 11개사 최종선정
- 창투자 평가 (8월말~9월말)

Special Profile

- NEW FACE 최원연 파트너

Venture Focus

- 엔투에이

Special Report

- 그들의 여름이야기

<< 8월 LG벤처투자 소식

☆ LG벤처투자 모태펀드 선정

LG벤처투자가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1차 사업에 창업조기기업(결성예상액은 300 억원) 펀드에 최종선정되었다.

☆ 최원연 파트너 영입

LG벤처투자에 새로운 파트너가 영입되었다. 전 에스나벤처의 대표였던 최원연 파트너가 투자그룹 파트너로 8월부터 새 가족이 되었다. 최파트너는 서울대와 스탠포드대를 졸업하고 삼성SDS수석, 에스나벤처를 대표를 역임하였으며, 서울정보통신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지내기도 하였다. 최파트너는 LG벤처투자에서 IT 전략 및 모바일을 담당할 예정이다.

<< 8월 VC 소식

모태펀드 첫 출자 투자조합 11개사 최종 선정

한국벤처투자는 올해 모태펀드로부터 1차로 930억원을 출자 받을 창투자조합으로 영상펀드 4개(와이텍기술투자, 엠벤처투자, mvp 창업투자, 센츨리온기술투자), 창업조기기업펀드 3개 (엘지벤처투자, CKD 창업투자, 안미엘리기술투자), 일반펀드 2개(일신창업투자, 인터베스트), 세컨더리펀드(스틱아이티투자)와 지방기업펀드(오서벤처투자) 각 1개를 선정했다.

창투자 평가기간

중기청에서는 8월부터 9월까지 창투자 평가를 시행한다. 이 현장실사 기간동안에 평가를 항목은 창투사의 경영상태, 조업률성 운영, 운용인력, 투명성 및 리스크관리, 법규위반 등 5개 영역이다. LG벤처투자는 이와 관련, 31일과 9월1일 양일간 현장실사를 받은 바 있다.

<< 8월 투자업체 소식

☆ 엔투에이, 하이필과 합병 결정

휴대폰용 8LU 및 렌즈를 생산하는 엔투에이(대표:송승훈 <http://www.n2a.co.kr>)가 TFT-LCD 부품업체인 하이필에 흡수합병된다는 계획이 8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확정되었다. 이로써 엔투에이는 11월경 코스닥에 우회상장 될 예정이다.

☆ 템텍, 천만코팅기술

템텍(대표 유재성 <http://www.temtech.co.kr>)이 휴대용 원도의 양면에 각기 다른 기능성 코팅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.

☆ 아바코 신규본사 제조라인 가동

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업체인 아바코(대표 박종오 <http://www.avaco.co.kr>)가 대구 서구당 내 대지면적 3200평(플랜트 900평) 규모로 신규 본사를 완공하고 장비 제조에 본격 착수했다



엔투에이

http://www.n2a.co.kr

대표이사: 송승훈

설립일: 2000년 4월

사업분야: 휴대용 BLU, 렌즈공정 등 광학 분야 전문업체

8월 16일, 아이벨과 합병결정

엔투에이는 휴대용 BLU 및 초정밀 금형기술을 이용한 렌즈 가공사업을 하는 업체이다.

지난 2000년 4월 대우그룹의 중앙연구소격인 대우고등기술 연구원의 연구원 출신들이 모여 설립된 엔투에이는 지난해 258억원의 매출과 14억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LG이노텍과 네오디스 등 LCD모듈업체를 거쳐 LG전자로 납품하고 있다.

아이벨과 엔투에이의 이번 합병으로 엔투에이의 중소형 BLU 사업과 아이벨의 광기능성 시트 사업이 만나 TFT-LCD 부문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또한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모듈 부문에서도 엔투에이의 초정밀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렌즈 모듈 사업과 아이벨의 이미지 센서 모듈 사업이 조화를 이뤄 합병된 아이벨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.

그들의 여름이야기

■ LG벤처투자 여름 보고서~

올 여름은 덥고 선선한 날씨가 번갈아 가며 지나가고 작년만큼 덥거나 더운피어가 없어 다행이었지요~ 벌써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서울 하늘이 한층 파랗고 드넓은 걸 보니 가을이 문턱에 온 느낌이네요. 2005년도 짧은 여름을 돌아보며, LG벤처투자 임직원 여러분들은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하게나마 몇몇분께 여름우기를 물어보았습니다. 올 여름은 여러 사내외 이슈들로 인하여 직원들이 거의 휴가를 쓰지 못한 관계로, 사무실에서 휴가를 즐기신 분이 많은 것 같네요~ ☺

마태훈: 열심이 끝났 준비했습니다. 여름휴가는 신혼여행으로 대체..☹

박기호: 무뎠는데와 소택산에서 위은 공기를.. 쫓았지만 좋았습니다.

김윤관: 시원한 사무실에서 '일 심해경'-의미를 찾아서 (ㅇㅇ)

이현근: 배타고 제주도도~ 타이타닉의 낭만을 기대하며..

박준호: 가슴속깊이 적서주는 소낙비가 그리웠습니다.

차수은 : 가장 기억에 남는건 고향갔을때 임아가 매주신 팔방수!! (연유 불명)

Special Profile



PROFILE

- >이름: 최원연 (Choi Won Yun)
- >생년월일: 1961. 2. 3
- >본적: 서울시 중로구 통의동 14번지
- >학력: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박사,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기계공학 석사, 로보틱스 박사
- >경력: 삼성SDS 수석('93-'00), 에스나벤처그룹 대표('00-'04.7),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정보경영학과 겸임교수('03-'04.6)

인생철학

- ✓모토: 정직과 성실
- ✓과제: 제2단계 인생 설계 (the second stage life planning)
- ✓목표: 人生三分快樂 - 즉, 여성을 노탕 1/3, 여가 1/3, 교육 1/3로 3분할하여 쾌적하고 즐겁게 즐기 는 것

여가생활

골프, 여행, 식도락, 독서 및 모험(스카이다이빙, 번지점프, 등등)

투자철학

에스나벤처그룹 시절, 4년 반 동안 20여개 회사에 약 350억을 투자하였고, 케이애플테크, 엔투에이, 네오디스, 캄트로닉스, 엠비즈네트웍스, 원포넷, 시그연 등 10여개 업체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했습니다. 이 중 시그연은 2003년에 코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.

LG벤처투자 새가뭇이 된 소감

전통과 실력을 겸비한 조직의 일원으로 같이 재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기 안 땅없고요, 이전 직장에서 마무리하지 못 한 Venture Capitalist로서의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. 가능하다면, 향후 우리회사가 발전하여 중국, 일본, 인도 등 외국으로 진출할 때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.